▣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공감음악회 : 다음 주일은 교회설립기념주일입니다. 주일 오후에 공감음악회가 열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4월 임원회가 열립니다.

초록장터 :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초록장터가 5월 17일에 열립니다. 이웃과 나눌 의류, 도서, 장난감, 가정용품 등을 초록가게에 보내주세요.

신앙실천 : 세계의 난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시리아 난민만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예배	행 8:26-40 / 시 22:25-31 요일 4:7-21 / 요 15:1-8	2부 예배	엡 4:1-7

오늘 식당 봉사 : 안정숙 진정숙 이혜령 최희영 오미경 임주빈 김정민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홍재 곽권희 정연희 한상경 김태정 신영희 윤성종 최철수
오늘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2여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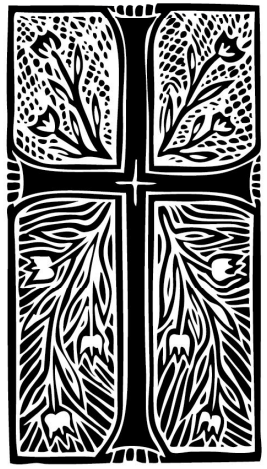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107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 4주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0. 전능왕 오셔서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을 따라 살며 덩달아 거칠고 무뎌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봄날의 연한 나뭇잎처럼 부드러운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늘의 바람과 땅의 눈물에 반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세계 곳곳의 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아와 환경파괴, 전쟁을 피해 고향과 고국을 등진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거친 광야와 바다에서 그들의 생이 끝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국제사회가 그들의 설 땅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히12:2,3 ····· 인도자

♠ 교 독 문 ····· 74. 마태복음5장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대표기도 ····· 김정민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312.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 다 함께

♠ 성경봉독 ····· Ⅰ. 행4:5-12 요일3:16-24 요10:11-18 ····· 박재란 선생
Ⅱ. 마 12:15-21 이현순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하나님 참 사랑 ····· 찬양대

말 씀 ····· **Ⅰ. 너를 위해 기꺼이** ····· 이범석 목사
Ⅱ. 은밀하게 꾸준하게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구재원 권미숙 김경혜 김문주 김성우 박유경 김용진 박효선 김재환 김진선 김정화 김정훈 이진영 김종철 고영애 김주영 김준호 곽혜자 김중현 성귀옥 김지현 김철수 유영남 김필순 김훈동 유경순 박명제 서미경 박병구 박석희 조항미 박영희 변재민 이소혜 성지현 송인선 신미라 양상철 박재란 윤정덕 구성실 은종인 이국노 김민화 이미휘 이용석 이유진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장기욱 장원호 박성희 장혜정 정영례 정종삼 조헌권 박아영 최미자 최옥자 최재욱 이수정 하정석 이명희 한기택 한상경 한성건 정지혜 한완식 임정자 허준호

감사헌금

강미선 주현철 관리부 권미정 김유미 박병구 김인순 방문성 박혜경 안정준 이경준 오진희 이은혜 조우석 조항범 오현정 현명애 무명8

생일감사헌금

김애경

녹색꿈헌금

안종일 정현주 최경미 무명6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백 혜 숙	박 성 희	정 두 리	박 성 희
안 디 옥	신 진 식	최 경 미	서 원 금	정 복 순
가 나 안	장 영 숙	신 영 신	박 정 숙	문 영 혜
베 다 니	박 홍 재	박 홍 재	박 홍 재	김 태 정
시 온	권 미 숙	박 미 영	박 미 영	허 정 윤
에 베 소	김 금 순	김 금 순	이 순 정	이 봉 옥
빌 립 보	곽 권 희	윤 수 진	김 필 순	김 재 광
가버나움	안 홍 숙	오 현 정	이 수 정	김 명 희
나 사 렛	김 경 혜	홍 춘 숙	홍 춘 숙	쉼
다 메 섹	박 혜 경	박 혜 경	박 혜 경	정 현 숙
두란노1	김 재 흥	오 자 영		
두란노2	김 재 흥	송 형 운		
두란노3	이 범 석	이 진 영		
두란노4	이 범 석	곽 상 준		
두란노5	신 진 식	이 오 복		

▣ 마음으로 읽는 글

비단길1

내 밀려서라도 가야 한다면/ 이름만이라도 아름다워야지 비단길
허나 지나는 마음 쓸쓸하여 영 자갈밭일 때
저기 길을 끌어가는 덤불숲 사이로
언뜻 몸 감추는 세월의 뒷모습 보인다
저렇게 언제나 몇 걸음 앞서 장난치며/ 어디 헛디뎌봐 유혹하는
허방이여, 온다던 사람 끝내 오지 않아서
기어이 찾아나선 마음 성급하다 발 거는 걸까
잠시 허리 굽혀 신발끈이나 고쳐 매면/ 흐린 물둠벙에 고인 행색
더는 고쳐 맬 수 없는 생애가 엎드려 있다
앞서거나 뒤쳐지는 게 운명이라서
대상의 행렬은 뽀얀 먼지 속에서 유유한데
비단길, 미끄러운 아름답게 나를 넘어뜨릴 때
어디 經을 외며 지나는 수도승이라도 있어
저런 조심해야지, 일으켜주며 세상 홍진/ 온전히 털어내는 법 가르쳐줄까
물음표처럼 휘어진 등뼈 곧추세울수록
먹장구름은 다시 우르르 몰려와 기우뚱거린다
지나가는 저 빗발 긋는 동안이라도
내 멈춰서지 못하는 건 영영 모래기둥으로 변할
몇 천 년의 전설 두렵기 때문이 아니다
밀려서라도 가야 할 인연의 사슬/ 질기니 이름만이라도 아름다워야지 비단길
얽힌 마음 다잡아 걷다 보면/ 길 잘못 들었다며 앞을 가로막는 이정표조차
그렇게 정답고 눈물 나는 것을 – 강연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 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 휘 : 윤주원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 양 …… 539.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 다 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에겐 가야할 진리와 정의의 길이 있습니다. 꾸준한 걸음으로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맘 상해하지 말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다 함께: 아멘. 가야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방황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만을 바라보며 묵묵하고 꾸준한 발걸음으로 그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김기석 목사	**낮 집 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연구 / 강의: 이범석 목사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예배위원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권하영 선생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김현주 집사

4	**영접위원**	윤석철 이국노 문홍일 김민화 한상경 정연희
	헌금위원	하현철 박성실

환경 칼럼

청파교회를 말해 주는 초록장터

늦은 저녁, 도심의 한 거리에서 두 친구가 우연찮게 만납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질문을 받은 친구가 말없이 길 가에 세워둔 차를 보여 줍니다. 그러자 음악과 함께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 뉴 럭셔리” 수년 전 나왔던 자동차 광고입니다. 이 광고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소유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가 타는 자동차, 사는 집, 입는 옷, 직업이나 통장잔고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그에 대해 말해 주는 것은 그의 외모나 소유가 아니라 그의 내면입니다.

늦은 저녁, 수요모임을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다가 우연찮게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가 교회 마당과 건물을 훑어보며 묻습니다. “어떤 교회야?” 교회 또한 그 가치는 드러난 외면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의 크기나 교인의 수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파교회를 말해 주는 우리 공동체의 내면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그리고 매년 말 발간하는 우리 교회의 목회보고서 표지를 보면 청파감리교회라는 이름에 더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청파교회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대표적인 “녹색교회” 중 하나입니다. 녹색교회는 교회 녹화,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실천, 생명밥상 빈 그릇 실천, 햇빛발전소 설치, 초록 가게 등 교회의 녹색실천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예배, 교육, 봉사, 운영 등 교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에서 창조질서 보전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청파교회는 2000년 전교인 수양회 동안 지켜야 할 생활수칙으로 ‘음식물 남기지 않기’를 결정한 이후, 이를 일상 캠페인으로 확대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배고픈 이웃을 돌보고 피조세계에 속한 뭇 생명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식사를 감사함으로 먹고 또 깨끗이 비우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평화세상을 열어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교회설립 100주년을 즈음하여 지붕에 들어선 햇빛발전소는 매년 약 3,600k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며, 교회는 이를 통해 들어오는 수익금 모두를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나가는 노력과 함께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은 원자력의 위험으로부터 피조세계를 지켜 나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생명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지하 식당 한 켠에는 유기농 먹거리와 친환경용품을 판매하는 청파농도생협이 있습니다. 감리교 농도생협의 지부인 청파생협은 농촌교회 생산자와의 협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서 뭇 생명들과의 연대가 가능한 바른 소비 생활 운동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청파생협뿐만 아니라 작지만 제법 근사한 청파초록가게도 있습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초록가게 제5호점인 청파초록가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생각하며 자원을 재활용, 재사용하여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살려내는 착한 소비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초록가게는 매년 봄 교회마당에서 초록장터를 엽니다. 올해는 5월 17일에 열립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진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장난감, 도서, 생활제품 등을 이웃과 나누고, 쓰지 않는 물건에 새로운 필요와 사용처를 찾아 재활용, 재사용 해주는 한바탕 즐거운 장터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수익금은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데 모두 사용됩니다. 초록장터를 통해 신음하는 생명이 회복되고, 황폐해진 세상에 초록빛 생명이 되살아나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는 교회가 굳건히 서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의 시작을 위해 장터 기증품을 초록가게에 보내 주세요.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인 우리 청파교회를 청파교회답게 해주는 초록장터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환경부]